

여래장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그릇된 사건에는 여래장(如來藏)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일체 세간의 생사로 열락지는 오염된 법이 모두 여래장을 의지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이 진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경전의 말을 듣고 바로 알지 못하여 여래장 자체에 세간의 생사 등 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래장 자체에 세속적인 번뇌와 고통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래장은 본래부터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무수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진여의 마음 그 자체이며, 그것과 관계가 없거나 끊겼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수한 번뇌와 고통이 야기되는 생사의 법은 다만 의식되어지는 존재로서 본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가 아니다. 일찍이 여래장과 더불어 서로 일치되어 본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래장 자체에 번뇌나 고통이 본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여래장 자체에 생사 등 법이 본래 있었다면 여래장을 증득했을 때 생사 등 망법(妄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여래장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여래장에 의해 생사가 있으며, 여래장에 의한 까닭에 열반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바르게 알지 못해 중생이 비롯할

여래장은 진여의 마음 자체 시작도 끝도 없음을 알아야

이 있다고 보아 여래가 열반을 이루었다가 다시 중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 다시 말해 ‘중생이 시작이 있고 열반도 끝이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여래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없애주는 것이다.

중생의 모든 세계가 마음에 의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는 법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능가경>에서 적멸(寂滅)이라 하였다. “적멸을 일심(一心)이라 하고 일심을 여래장이라 한다”는 경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생을 여래장이라 할 때는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중생 속에 부처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 모두가 여래의 씨앗이라는 말이다.

원효 스님은 <금강삼매경론>에서 <부중불감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래장을 세 가지 뜻으로 설명하였다.

- 능섭여래장(能攝如來藏): 여래의 모든 공덕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불가사의한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

- 소섭여래장(所攝如來藏): 번뇌망상에 얽혀 온갖 망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여래장이 그대로 있는 것.

- 은부여래장(隱覆如來藏): 범신여래가 번뇌에 뒤덮여 스스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여래장의 뜻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지만 기신론에서의 여래장은 진여를 말하는 것으로 생멸을 떠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멸 속에 그대로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여래장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는 여래장이 전제(前際)가 없고 후제(後際)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여래장은 시간적인

위치 곧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나간 과거의 어느 즈음도 없고 다가올 미래의 어느 즈음도 없다는 말이다. 초시간적인 것이라 과거 어느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래 어느 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불성 혹은 법성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아견(人我見)을 가지면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어 법아견(法我見)에 대하여 설명한다. 법아견이란 기성 수도인이 빠지기 쉬운 고집을 말한다. 사물 그 자체의 존재를 믿는 고집 가운데 오음법(五陰法)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때문에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오음이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오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버리려는 하는 것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승들이 곧잘 빠지는 그릇된 견해로, 인연에 따라 생진 오음에는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열반이란 오음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생활의 지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사귀 뒤의 후유증이다.

잠 못 이루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생각이 바뀌어 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이 모든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다면 그는 조심성이 결여된 어리석은 사람이다. 체험과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살아있는 지혜이다. 또 한 커다란 교과서이자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스승이다.

누구에게나 버릇은 있다. 그 버릇이 길게 이어지면 습관이 되고 업(業)이 된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업의 무게에 짓눌린 이용당하는 자, 생각과 행동에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그러나 살피고 열어 느슨함을 줄여나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

이를 낳고 모진 노력 끝에 이혼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생활하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능력 있는 신사를 만나 재혼하고 보니 교도소 출입 경력이 화려한 강패출신에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사람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도 사람이지만 절망과 배신, 분노와 공포의 대상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나누는 상대나 대화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미운 자 한사람 정도는 어느 곳이나 있다. 내가 바뀌면 미움의 대상도 사라진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살 버릇은 세 살 때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친구를 사귀되 서너 곱 앞서가

고정관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생각 변화하고 행동하면 운명 바뀐다

아니다.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지지 않는 삶의 지혜로 후회의 그림자를 줄이게 된다. ‘뉘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는 차량 정비소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말과 행동을 살피며 털어내고 털어내며 다지고 계를 없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친구는 세 곱 위를 사귀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두 눈은 복두성에 머물게 하라’는 말씀이 담겨있다. 백범 김구선생의 어록에는 ‘손으로 태산을 움켜쥐어 손바닥에서 호랑이가 울게 하고 입으로 바다를 들여 마셔 고래가 배속에서 놀게 하라’는 말씀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선 먹는 곱 감 쪽을 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가 고파도 물고기가 미끼를 탐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도서관에서 원서로 된 책만을 골라 사는 깔끔한 외모에 청순함까지 갖춘 어느 남자에 마음을 뺏긴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보니 산탕이 처럼 무식한 강패출신 건달이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전설이 아니다. 딸아

는 친구는 또 하나의 교과서이자 스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인과설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잠자는 토끼는 움직이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잠 못 이루는 자의 느낌일 뿐이다. 길이 길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피곤한 자의 낮뒤리일 뿐이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계은 자는 운명론으로 기울고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는 타작해 거뭇들이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요, 사람이 부처임을 운명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불교신앙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먼저 바뀌고 행동이 따라주면 운명도 저절로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음의 닫힌 문도 활짝 열고 보면,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열려오는 것이다.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상 열린 채로 있느니라. 두드리는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요 구함이 많을수록 마음은 번민에 찬다.’ 부처님이 가르침이다.

마구니는 자비심·보시로 인해 근심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왜 보시를 하는가

悲心為體能行大施滅眾生苦。如盛熱時興大雲雨。起大悲雲雨於施雲。破貧窮如壞山石。拯貧窮者無限齊施。令彼窮者永離貧苦。以大施雨普益一切。眾生貧窮永無住處。菩薩為救眾生修行施時。魔及眷屬皆生嫉妬憂愛苦惱。菩薩修行無量財施法施之時。貪嫉妬悉皆驚駭莫不愁怖。

(비심위체능행대시멸중생고, 여성열시흥대운우, 기대비운우어시막, 최과빈궁여괴산석, 증빈궁자무한제시, 영괴자영리빈고, 이대시우보익일체) 중생빈궁영무주쳐, 보살위구중생수행시시, 마급권속개생질투수우고너, 보살수행무량제시범시시시, 간담질투실개경호막불수포.)

번역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능히 보시를 크게 행한다면,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때 큰 구름이 일어나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큰 대비심의 구름이 일어나 우박을 뿌리고 비를 내리면, 가난과 빈궁함이 부서지고 산에서 돌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이를 건지되 한량없이 곱고루 베풀다면, 저 빈궁한 이로 하여금 빈궁의 고통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보시의 구름은 일체를 두루 이의 되게 하며, 중생은 가난과 궁핍함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행하고 보시할 때, 마구니의 권속들은 모두 질투를 일으켜 근심하고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인색함과 탐욕과 질투로 모두 다 놀라고 부르짖게

되나니,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해설 보살이 보살도를 배우고 수행하며, 보시를 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중생을 모든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다. 이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 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살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은 어쩌면 스스로를 건지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 인색함과 탐욕에서 스스로를 건지는 일이다. 이는 일체 중생이 바로 자신인면서, 자신이 곧 일체 중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먼저 자신을 건지는 수행에서 그 깨달음이 가능하리라. 스스로 인색함과 탐욕에 빠져 있다면, 중생을 구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질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도 건지고 중생도 건지는 방법에 대해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은 말한다. 바로 큰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베푸는 마음은 바로, 만물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타들어갈 때 맥구름이 일어나 비를 뿌리며 대지를 식혀주는 것과 같다. 가난과 빈궁한 중생의 삶을 산이 무너지듯 부서뜨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생은 영원히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는 중생은 과연 남일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 중생은 곧 자기 자신일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서 일러주는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기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마구니는 울부짖는다. 마구니가 마구니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색함과 탐욕이 있기 때문인데,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니 어찌 울부짖지 않겠는가. 어찌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만들고 받들어 섬기던 인색함과 탐욕에서 돌이켜 마구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보살(菩薩)이 아니겠는가.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